1만 수계 동국대 영캠프, 포교 새 장 연다

건학위 연석회의서 행사 계획 보고
9월 17일 서울캠퍼스 영캠프 개최
3일 신청 접수서 1분 만 전석 매진
장충체육관서 대운동장 확대 운영
청년 불자 1만 명 수계에 관심 고조
WISE캠, 11월 17일 영캠프 개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학생 전법 축제로 자리매김한 '동국대 영캠프'가 올해에도 더욱 뜨거운 열기로 돌아왔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9월 9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6차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서울·WISE캠퍼스 영캠프 계획을 보고했다.

2024년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과 함께 처음 개최된 영캠프는 '힙한 불교의 열기를 잇고, '청년불자 씨앗'을 심는 청년세대 전법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로 자승 대종사가 남긴 '청년전법이 희망이다'라는 원력을 이어받아 마련됐다.

올해 서울캠퍼스 영캠프는 '주인공, 번뇌를 씻어내다'를 주제로 9월 17일 오후 5시 교내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영캠프는 처음 시작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으나 올해부터 동국대 대운동장으로 옮겨 진행된다. 더 많은 청년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이를 위해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 역시 대규모로 구성됐다. 이번 확대 개최를 통해 청년 불자 1만여 명이 한자리에서 수계를 받게 되며, 이는 불교 역사상 최초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영캠프에 대한 열기는 뜨겁다. 실제 9월 3일 오후 6시부터 진행한 '2026 영캠프' 참가 신청이 시작 1분 만에 매진됐다. 지난해 참가 신청이 2분 만에 마감된 데 이어, 올해는 마감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며 불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영캠프 행사는 수계식과 장학증서 수여식, 축하공연으로 진행된다. 수계식은 삼사 칠증 스님의 입장 후 시작되며 연비의식은 전법특임교수, 강사 등 150여 명의 스님이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금은 수계식을 포함해 오후 8시까지 행사에 동참한 불교동아리 회원이자 2026년도 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에게 지급된다.

영캠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드림패스 마일리지 30점, 신행 마일리지 20점이 적립되며 행사에 동참하는 교수 및 직원에게는 건학이념수행평가 점수 3점, 교육 점수 3점이 부여된다.

축하 공연 출연진도 눈길을 끈다. 국민 아이돌로 급부상한 리센느를 비롯해 래퍼이자 프로듀서인 지코, 다국적 보이그룹 NCT드림이 참여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조영일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사무국장은 "초반에는 7000명 규모의 행사였지만 인원이 늘어서 1만 명으로 영캠프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1만여 청년 불자가 교내 운동을 가득 메운 장관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1만여 명 규모의 수계법회를 계기로 청년 전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향후에도 청년세대와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ISE캠퍼스 영캠프 계획도 발표됐다. '동행, 함께 길을 열다(가칭)'을 부제로 오는 11월 17일 오후 3시 교내 문무관에서 열린다.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WISE캠퍼스 영캠프는 수계식과 어울림 한마당, 초청가수 공연으로 진행된다.

수계식은 삼사 칠증 스님의 주재로 이뤄지며 연비의식은 WISE캠퍼스 전법특임교수, 강사, 서울캠퍼스 학인스님 등이 참석해 진행된다.

WISE캠퍼스 정각원장 법천 스님은 "학생 주도의 축제인 영캠프를 통해 불교 동아리의 결속과 참여를 높이고 건학이념 실천 및 청소년 불자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건학이념 구현과 WISE캠퍼스 재학률 상승 등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대학생 전법 축제인 '영캠프' 성공 개최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불교동아리와 영캠프 법회가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팔정도 광장 부처님에게 삼배를 올리는 학생들이 많아졌음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영캠프에서 동아리 회원 7000명 이외에도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신청을 했다. 참가 구성도 미국에서 오는 학생부터 북한 이탈 대학생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캠프 개최까지 1주일 남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영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학내 구성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9월 5~6일 '바람의 길 쓰담 순례'를 진행했다. 사진은 갑사 대웅전 앞에서의 단체촬영 모습.

여성불자들, 쓰담순례로 수행

9월 5~6일, 마곡사·갑사 등서
수행·기도하며 전법 원력 모아

전국 여성불자들이 마곡사에 모여 뭇생명을 쓰다듬을 수 있는 수행 정신을 되새겼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는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에서 9월 5일부터 6일까지 '마곡사 바람의 길 쓰담순례'를 진행했다. 이번 순례는 천년 백제불교 역사를 간직한 태화산과 계룡산에서 문화유산을 체험하며 수행 정신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전국여성불자회 회원 137명이 동참해 마곡사를 비롯해 계룡산 갑사, 신원사 등을 순례하며 수행과 기도를 함께하며 전법의 원력을 모았다. 특히 마음나누기 프로그램에서 회원들의 찬불가 공연, 지역 및 직능별 소통의 장도 마련돼 교구 회원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의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쓰담순례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실천이며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수행"이라며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역시 천년의 역사 속 또 하나의 소중한 흔적을 남기는 수행의 한 모습이니 자긍심을 갖기 바란다"고 서원했다.

첫날 한국문화연수원 다목적홀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의 '불교5대 수행법' 특강이 진행됐다. 강의 후에는 자비걷기 명상으로 마곡사 순례를 마쳤다. 이어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개막작 영화 '절해고도'를 관람하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튿날에는 예불과 명상, 아침공양을 마친 후 임진왜란 의승장 영규 대사의 사적비가 있는 계룡산 갑사와 명성왕후 기도처 신원사를 참배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국여성불자회는 10월 20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11월에는 '제3회 김장은 축제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지운 기자

조선 왕실 조성 불경·불상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보물 지정예고
'불정다라니경' 등 4건 공고

조선 왕실 주도로 조성된 불경과 불상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조선 전기 왕실 주도로 간행된 '불정심다라니경(한문·언해본)'을 비롯해 '평창 상원사 석가여래삼존좌상·16나한상 일괄 및 복장유물', '순천 송광사 오십삼불회도', '공주 마곡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중앙도서관이 소장 중인 '불정심다라니경(한문·언해본)'은 한문본과 언해본이 함께 수록된 책으로 각각 3권씩으로 구성돼 있다. 한문본은 1485년(성종 16) 인수왕대비의 주도로 간행된 목판본이며, 언해본은 1455년(세조 1) 조성된 금속활자로 인출한 것이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불정심다라니경(한문 · 언해본)'.

국가유산청은 "한문본과 언해본의 구성을 가진 책 중에서 조성 당시의 온전한 원형으로 전해지고, 지정된 사례는 현재 없다"면서 "한문본만으로 구성된 동일 책과 비교할 때도 내용과 인쇄 상태가 뛰어난 선본(善本)이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크다"고 지정의 이유를 밝혔다.

월정사성보박물관에 수장 중인 '평창 상원사 석가여래삼존좌상·16나한상 일괄 및 복장유물'은 예천 운복사에 봉안돼 있었던 것으로 소조상 가운데 없어진 상을 1711년 목조로 다시 제작한 것이다. 1885~1886년경 운복사에서 상원사로 이안하고 왕실 주도로 개채(改彩, 다시 채색함) 중수한 다음 영산전에 봉안했다.

'순천 송광사 오십삼불회도'는 오십삼불 신앙을 불화로 구현한 사례로, 그 구성이 완전히 남아 있다. 복장낭 속 회향발원문을 통해 수화승 의겸을 중심으로 한 26명의 제작 화승, 1725년이라는 제작 시기가 밝혀진 작품이다.

'공주 마곡사 동종'은 몸체에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주종기(鑄鍾記)를 통해 승장(僧匠) 보은이 1654년(효종 5) 제작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동종이다. 처음 안곡사(安谷寺)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는데 18세기 중반 경 안곡사가 폐사될 무렵에 마곡사로 이운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종 표면에는 제작을 위해 신도들이 시주한 물목을 종시주(鍾施主), 용두시주(龍頭施主) 등으로 구분하여 새겨 놓았는데, 이는 종뉴와 종신을 별도의 틀로 제작한 뒤 두 틀을 결합하여 주조했던 당시 동종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는 기록으로서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는 평가다. 신중일 기자

운문사·봉녕사 '출가학교' 참가자 모집

운문사, 11월 27일~12월 6일
봉녕사, 내년 1월 21~30일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와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여성들을 위한 '단기출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운문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2기 운문사 바라밀 출가학교'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바라밀 출가학교는 '진정한 행복은 지금부터!-백프로 리얼 스님의 하루 살아보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대중생활이 가능한 17세부터 65세 여성 15명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스님의 일상을 체험하며 수행과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 및 108배, 아침 발우공양으로 하루 시작을 연다. 이후 상강례, 습의, 후원 운력, 사시마지, 점심공양으로 오전 일정을 마친다. 오후에는 포행, 수업, 세면, 저녁공양이 진행된다. 이어 저녁예불, 좌선 정진, 수행일기 작성 후 취침으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한다.

참가비는 성인 40만원이며 재학증명서를 제출한 고등학생·대학생은 20만원이다.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010-3686-7118

수원 봉녕사도 2027년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열리는 '제7기 여성출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차를 우리고 마음을 바라보다'를 주제로 행다선명상이 집중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삼귀의 오계 수지, 발우공양, 조석예불, 운력, 실참수행 등을 체험한다. 경전 독송과 좌선정진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부처님의 생애와 기초교리를 통해 불교 가르침을 배우며 수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7기 단기출가학교는 심신이 건강한 17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선착순 모집으로 참가비는 60만원이다. 신청은 봉녕사 홈페이지(www.bongnyeongsa.org) 공지사항을 확인해 해당 제출서류와 함께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010-9897-4127 박지운 기자

'평화통일 글짓기' 대상에 조희원·송다영

9월 8일, 수상작 54편 발표
'고추잠자리의 약속' 등 선정

남북의 평화와 화합,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짓기 공모전에서 조희원 씨의 시 '고추잠자리의 약속'과 송다영 씨의 수필 '그냥은 안 돼요?'가 대상에 선정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 이하 민추본)는 9월 8일 '불교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 속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열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7월부터 8월 15일까지 어린이·청소년·대학생·성인 부문으로 나눠 시와 수필을 접수했으며, 총 324편이 출품됐다. 1차 심사를 통해 75편을 본심 대상작으로 선정했으며, 8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54편의 수상작을 확정했다.

수상작은 대상(조계종 총무원장상) 2편을 비롯해 최우수상(명법사 실천회 총재 도문 큰스님상) 5편, 우수상(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상·불교신문 사장상) 17편, 가작 10편, 입선 20편이다. 심사는 조계종연구소장 원철 스님을 위원장으로 5명의 심사위원이 맡았다.

청소년 부문 대상작인 '고추잠자리의 약속'은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를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인 부문 대상작은 '그냥은 안 돼요?'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민추본 홈페이지(www.uni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9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이현희 기자

무진장 대종사 13주기…"청빈 실천"

9월 9일, 서울 조계사 극락전서
진관 스님 "유품 알릴 기회 오길"

한평생 포교전법에 매진해 온 혜명당 무진장 대종사의 원적 13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추모법석이 마련됐다.

무진장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진관 스님)은 9월 9일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혜명당 무진장 대종사 열반 13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사회를 진행한 범상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스님은 한국불교에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어 온 수행자의 표본으로만 언급될 뿐, 정작 스님에 대한 기림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스님의 뜻과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실천해 나가자"고 서원했다.

이후 영단에 헌향과 삼배를 올린 참석자들은 무진장 스님과의 추억을 회고하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상좌인 진관 스님은 "조계사 등지에 흩어져 있던 스님의 유품이 현재는 조계종 박물관 수장고에 있어 참 다행이지만 모든 사람이 유품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스님의 흔적이 담긴 유품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꼭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명안 스님은 무진장 스님을 청빈한 스님으로 기억했다. 명안 스님은 "스님은 청빈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오롯이 수행의 길을 걸어온 묵묵한 수행자였다"고 전했다. 이현희 기자

석불사, 음악과 미술로 물든다

9월 12일 '2026 가을음악회'
10월 10일 '8회 어린이 사생대회'

한강변에 자리한 석불사에서 음악과 미술로 물드는 가을축제가 잇달아 열린다. 서울 석불사(주지 경륜 스님)는 9월 12일 오후 6시 '2026 석불사 가을음악회'와 10월 10일 오전 10시 '제8회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9월 12일 '한강에 머물다'를 주제로 열리는 '석불사 가을음악회'에서는 유명 가수와 음악인들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트로트 가수 박성온·나상도, 더블베이스 연주자 김혜인, 리연, 어쿠스틱밴드인 라두밴드가 무대에 올라 가을 산사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저녁을 선사할 예정이다.

10월 10일 여덟 번째로 열리는 '어린이 사생대회'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참가해 그림 솜씨를 뽐낸다. 사생대회 주제는 현장에서 발표되고 참가 학생 전원에게는 크레파스, 스케치북이 주어지며 시상도 진행된다.

이날 삐에로풍선, 버블쇼, 페이스페인팅, 연꽃등 만들기, 컬러믹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온 가족이 가을을 다채롭게 만끽할 수 있다. 참가비 무료. 박지운 기자